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붕괴의 다섯 단계

드미트리 오를로프 지음·홍기빈 옮김

금융 붕괴, 상업 붕괴, 정치 붕괴, 사회 붕괴, 문화 붕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고 불안심리가 팽배하다. 생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타인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더불어'라는 말은 낯설게 들린다.

경제 위기,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짓누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붕괴'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책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붕괴의 연대기'의 저자이자 붕괴 및 석유 고갈 분야의 전문가인 드미트리 오를로프가 펴낸 '붕괴의 다섯 단계'는 붕괴의 다섯 국면을 조명한다. 또한 위기를 돌파하는 삶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도 고찰한다.

'루비콘을 건너서'의 저자 마이클 C. 루퍼트는 "붕괴를 다룬 책은 자칫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화만 내게 하는 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와는 거리가 먼 책이 되었다. 이렇듯 책을 드리트리 오를로프처럼 위트와 활달함과 경험이 넘치는 이가 펴내줘 너무나 다행"이라고 평했다.

저자는 붕괴 과정을 모두 다섯 단계로 규정한다.



1단계는 금융 붕괴다. "평소와 같은 경기"라는 믿음이 사라진다. 금융 자산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저축은 휴지조각이 되며 자본 집

1단계는 금융 붕괴다. "평소와 같은 경기"라는 믿음이 사라진다. 금융 자산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저축은 휴지조각이 되며 자본 집

중성이 막히는 단계다.

2단계는 상업 붕괴와 연관된다. "시장에 다 있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면서 화폐는 가치절하를 겪거나 희소해진다. 수입에서 소매업까지 이어지는 연쇄 고리가 끊기게 된다.

이어지는 정치 붕괴가 3단계다. "정부가 당신을 돌보아준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초 생활품을 살 수 없는 상태가 일상이 된다. 정부가 여러 시도를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4단계는 사회 붕괴다. "이웃들이 당신을 돌보아준다"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자선 기관이나 지역 사회 기관들이 권력의 공백을 메우게 되지만 자원 부족이나 내부 갈등으로 실패한다.

마지막은 문화 붕괴다. 결국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없어진다. 가족이 해체되고 희소한 자원을 놓고 개인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내가 하루 더 살려면 내가 오늘 죽어야 한다"는 행동 원리가 퍼진다.

저자는 단순히 경제 불황과 이에서 비롯된 사회 불안의 징후를 나열하지 않는다. 현대 산업 문명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붕괴의 다섯 단계'는 금융·상업·정치·사회·문화 등 다섯 단계에 걸쳐 붕괴의 국면을 조명한다. <공리 제공>

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현대 산업 문명이 모종의 위계, 착취 구조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다. 현재 지구적 금융 시스템으로 부를 키우는 것은 소수의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 기관이다.

이 흐름에서 '붕괴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필연'이다. "우리의 현재 지구적 금융 시스템은 이자를 받는 대출 행위 그리고 지구적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저자가 1장에서 우주의 제국 예를 통해 설명하듯이 에너지와 자원, 인구를 포함한 자연

환경은 결코 그러한 팽창을 용납할 수가 없다"며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물인격적이고 상업적인 관계를 버리고 신뢰에 기반을 둔 문화적 변화"를 꾀하라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붕괴 상황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붕괴가 벌어져도 삶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당신에게도 또 나에게도."

<공리·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의 인도=박완서, 법정, 신경림, 이해인 등 한국의 대표 문인 11인의 인도에서의 체험을 담은 여행기로 묶었다. 그들에게 인도는 내내 그리운 곳이 됐다. 온갖 신들이 머물다 가고 가난한 영혼들이 다음 생을 위해 삶의 담금질을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고 느꼈을까? 마음의 지도를 따라 인도로 향했던 11명의 문인과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난다. <책읽는심·1만5000원>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소비자층을 모은 다음에 이를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훌륭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잘 구축해놓은 플랫폼 하나는 꾸준히 사람이 모여 콘텐츠가 생성된다. 살아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저절로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완성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 <리온북·1만6000원>

▲여기가 끝이라면=문학전문 기자와 소설가로 활동해 온 조용호 작가가 문학·문화인 100명을 만나 풀이한 인터뷰 모음집이다. 이 책에는 조 작가가 지난 5년 동안 세계일보에 연재한 '조용호의 나마스테'에서 다룬 120여 명 중 문인 중심으로 100명을 골라 실었다. 지은이가 만나 안부를 묻은 100명의 작가들은 소설가, 시인, 평론가를 비롯해 화가, 영화평론가, 가수, 요리사 등 다양하다. <작가·1만7000원>



▲위단의 장자심득=중국의 문화학자인 위단이 장자가 일러주는 삶의 지침을 소개한다. 장자의 우화를 읽으며 그 안에 감추어진 요묘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영혼의 눈과 표정의 날카로운 칼날을 갖추어 세간의 시시비비를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성이 맑게 단련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151마리 몬스터의 숲.exe=포켓몬스터를 만든 타지리 사토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실제 게임기를 펼쳐 보듯 풀어냈다. 포켓몬스터 게임 속 151마리 몬스터는 내성적인 소년 사토시의 어린 시절에서 처음 탄생했다. 외톨이였던 사토시는 마침내 자신의 게임을 즐기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를 친구로 만났다. 그는 게임을 만들며 친구 사귀기에 대한 서툰을 극복하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남다른 재능을 펼쳤다. <씨드북·1만2000원>

▲뭔가 특별한 아저씨=주인공 다정 아저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머리카락이 꽤 길다는 것이다. 다정 아저씨는 아픈 아이들에게 머리 카락을 나눠 주기 위해 곳곳이 이겨낸다. 우리 모두는 다정 아저씨처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나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길 바라고 있다. <천개의바람·1만2000원>

▲휘경이와 꼬마 쥐=한국방정환재단이 개최한 '희희 다시 새롭게 쓰는 방정환



문학 공모전'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시골 쥐의 서울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약자인 어린이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 모험이야기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장과 자립에 대한 욕구와 부모 곁을 벗어났을 때의 두려움을 잘 보여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밝은미래·1만1500원>

'마법같은 유혹과 위로' 담은 26가지 술과 영화 이야기

술꾼의 품격

임범 지음

영화 전문 기자 출신인 임범은 애주가로도 유명하다. 지난 2008년 백수가 된 후 술과 영화를 버무린 글을 연재하던 그는 새삼스레 "그렇게 즐겨 마시던 술에 대해, 이렇게 몰랐구나"라는 생각에 미안함과 궁금증이 밀려왔다. 당시 연재 글은 애주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고 2010년 책 '술꾼의 품격'으로 묶여 나왔다.

'술꾼의 품격' 개정판이 8년만에 출간됐다. 저자는 그 사이에 한국 술꾼들의 선호도가 급증한 두 가지 술, 일러블트 위스키



와 크래프트비어를 영화 '앤젤스 셰어' 전사를 위한 위스키'와 '드링킹 버디즈'와 엮어 소개하고 있다. 또 달라진 술 문화와 주류업계

의 변화 등을 반영해 많은 부분을 새롭게 고쳐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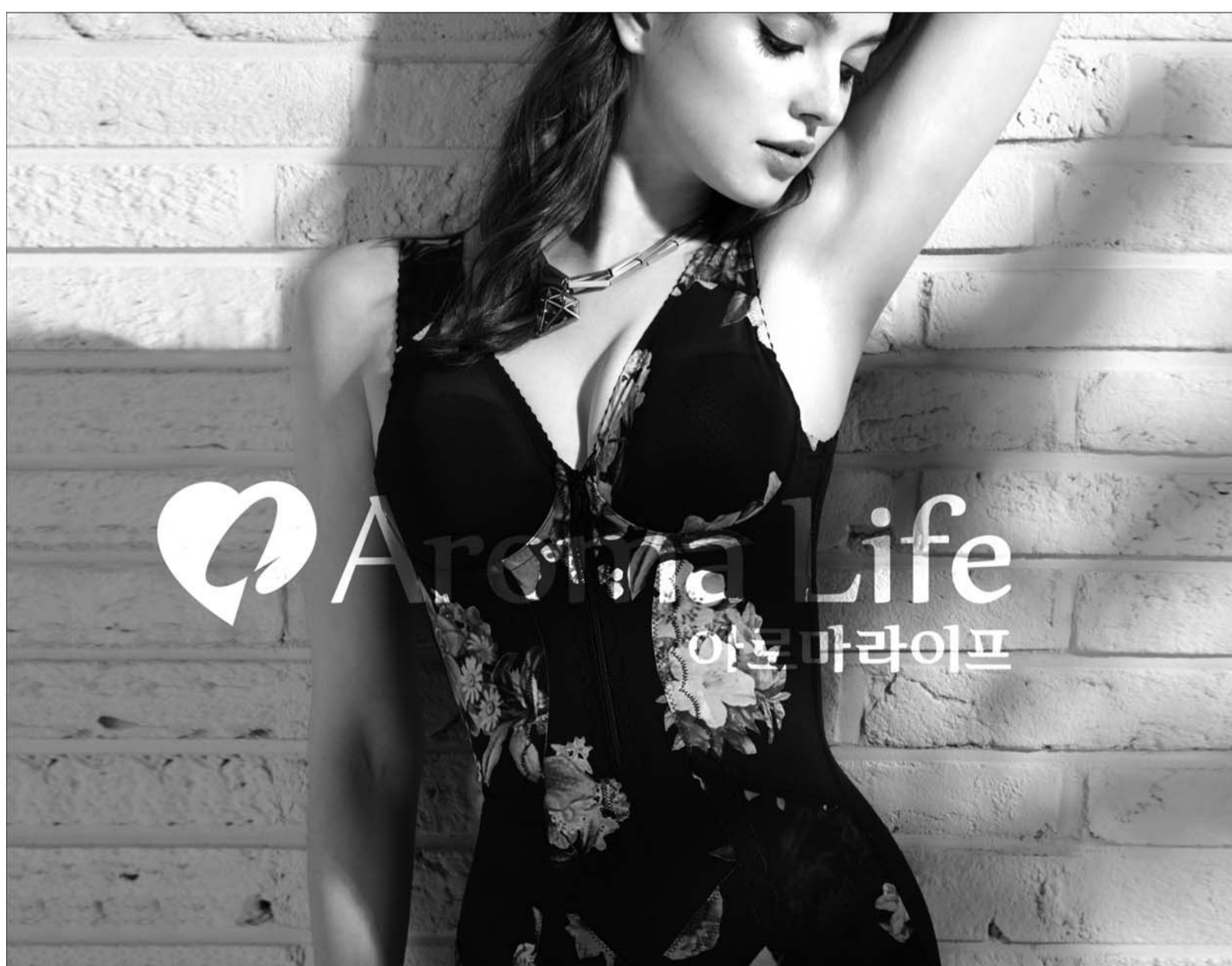
'술꾼의 품격'은 '마법 같은 유혹과 위로'를 담은 26가지 술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영화에 나온 술을 소재로, 그 술의 원료, 제조법, 유래 같은 정보에 영화 이야기를 덧붙여 흥미롭게 들려준다. 책은

위스키, 스피릿(증류된 독주), 맥주, 폭탄주, 기타 재제주, 각테일 등 6개 장으로 나눠 이야기를 펼친다.

'술'이 강력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 술의 이름을 '정확히'는 모를 지라도 말이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두 사내가 등장하는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의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 없다. 한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한명을 위해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두 사람이 폭풍우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나눠 마시는 술은 데킬라다. 한명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밥 달린의 동명의 노래가 흐르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강렬한 러브 스토리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 등장하는 보드카 역시 영화 내내 강

렬한 인상을 준다. 영화 '내부자들'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유혹과 위로를 혼합한 마법의 술' 모히토는 '마이애미 바이스'를 통해 글을 풀어나가며 박해일 주연의 영화 '질투는 나의 힘'에 등장하는 술은 '자주 먹게되는 싸구려 술' 캡틴 큐다. 또 아일랜드의 자존심과 단결의 상징인 기네스는 영화 '웨이킹 네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책은 그밖에 잭 대니얼스, 조니 워커 등 술 상표로 익숙한 이름의 실제 주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라거 맥주는 에일 맥주 보다 맛이 진짜 저열한지가, 암스트르는 왜 그리 오랜 세월 동안 환각 물질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됐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또 '한걸음 더' 코너를 통해 위스키 지도, 에일과 라거의 차이 등 소소한 정보들을 소개한다. <학교재·1만3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제품 수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제품 수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